

## AI 시대, 글로벌 변화 가속

## ‘AI 트레이너’ 글로벌 고소득 직업... 韓, 인프라·인재 부족

해외 경쟁력 강화 위한 필수 과제  
인재양성 교육체계 정책 지원 절실  
정부-기업, 지속적 협력 투자 필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줄이는 인간 ‘AI 트레이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AI 트레이너의 시급이 200달러에 달하는 등 고소득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프라, 교육 체계 미흡 등의 문제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트레이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생성형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환각 오류(hallucinations)나 데이터 오류를 찾아내 피드백을 제공해, AI가 더 정교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기에는 이미지가 자동화인지 당근인지 구별하는 단순한 작업 수준에 불과해 학부생이나 저임금(시급 약 2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줄이는 ‘AI 인간 트레이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미지.

만원) 인력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고도화된 AI 기술로 역사학자, 과학자 등 전문 인력까지 요구될 정도다. 심지어 일부는 박사 학위까지 소지해야 한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빅테크들은 이미 의학, 금융, 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AI 트레이너들을 적극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성에 따라 시급이 최대 40~50달러(약 5~6만

6000원)에 이르며, 일부 전문 분야에서는 시급이 26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오픈AI는 ‘휴먼 데이터 팀(Human Data Team)’이라는 이름의 연구팀을 구성해 AI 트레이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환각 오류를 줄이고 AI의 글쓰기 스타일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AI 개발과 연구에 대한 관심은 높

아지고 있으나, AI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인프라와 교육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설령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인재의 중요성이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인재풀(pool)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고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AI 연구원과 개발자 등 AI 관련 직군 전체에 걸친 인재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AI 트레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와 업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AI 이노베이션 스쿼어를 통해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허브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삼성, LG, 네이버 등 민간 기업들도 AI 캠프와 인턴십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KAIST, 고려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에서 AI 관련 전공을 신설하는 등 학문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트레이너와 같은 실무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기관이 부족하고, 관련 정책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현장과 교육 간의 괴리가 커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적했다.

AI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AI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 관리와 피드백 작업이 중요해질수록 AI 트레이너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며 “한국도 해외처럼 AI 트레이너와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협력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Z세대가 이끄는 ‘텍스트힙’ 열풍... 독서의 새 패러다임

자아 표현·소셜미디어 소통 수단  
AI 기술로 맞춤형 독서 경험 제공  
출판사 등 AI 기술·SNS 적극 활용

국내·외 Z세대 사이에서 ‘텍스트힙(Text Hip)’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새로운 문화 소비 방식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7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관련 업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스타,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해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한 독서 콘텐츠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텍스트힙은 ‘TEXT’와 ‘HIP(멋지다의 신조어)’의 합성어로, 독서나 글

쓰기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취미 활동을 넘어 그 자체를 트렌디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책을 읽고 1분 내외의 감상을 소셜미디어(SNS) 틱톡에 올리는 ‘북톡(BookTok)’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도서 판매량이 6억 6900만 권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텍스트힙 열풍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독서율이 74.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전반적인 독서율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Z세대를 중심으로 ‘읽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향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텍스트 힙 트렌드는 단순한 독서량 증가를 넘어 Z세대의 문화적 정체성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들에게 책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도구를 넘어, 자아 표현과 사회적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스트힙 트렌드에 맞춰, 관련 업계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는 AI 기술을 활용해 챗봇과 오브제북 등 개인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AI 오브제북’을 시작으로,

책의 주인공이나 저자의 페르소나와 대화할 수 있는 ‘AI 페르소나 챗봇’, 전자책을 더욱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AI TTS’ 기능 등 AI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AI 기반 독서 추천 기능인 ‘AI 스마트 키워드’도 선보였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남긴 리뷰를 바탕으로 AI가 도서를 추천하고, 해당 도서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단순 키워드가 아닌 문장으로 안내해 독자들이 더욱 쉽게 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밀리의 서재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가 종이책의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데서 착안해 종이책 구독 서비스도 출시했다. 지난 7

월 출시한 종이책 구독 상품 ‘밀리 컬렉션’은 구독자들의 취향에 맞는 종이책을 매달 집에서 배송받아 읽을 수 있는 서비스다.

출판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다. 출판사 민음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민음사는 지난 2019년부터 ‘민음사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24.4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했다. 채널에서는 출판사 직원들이 직접 패널로 등장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 SKT “에너지·통신·메모리 등 혁신 논의”

내달 4~5일, ‘AI 서밋 2024’ 개최

전세계 AI 석학·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간 최대 규모의 AI 서밋이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SK텔레콤은 다음달 4~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4’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밋에는 그래픽 프로세서 제조사 엔비디아, 라니 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총괄 부사장, 리 카이푸 시노베이션 벤처스 및 라임즈 AI 회장, 스티븐 발라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업 람다 최고경영자(CEO) 등 외국계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찾은 것을 비롯해 국가 AI 위원회 부위원장 염재호 태계대 총장, SBVA

(전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 등 국내 AI 분야 대가들도 대거 참석한다.

‘SK AI 서밋’은 SK 그룹 차원으로 매년 개최해왔던 행사를 올해 AI 중심의 대규모 글로벌 행사로 한 단계 더 격상해서 열린다. 올해는 AI 전 분야의 글로벌 대가들이 모두 모여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공존법을 논의하고 AI 전 분야에 대한 생태계 강화 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AI 가치 사슬을 만들기 위한 공존법과 AI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의 축하 메시지로 화려하게 막을 연다.

이번 서밋은 SK와 국내외 파트너사

들이 준비한 AI 기술 영역에 대한 100여개의 발표 세션과 50개의 전시, 체험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행사 첫 날인 11월 4일에는 대규모인 어모텔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오픈AI의 회장 겸 사장이 참석해 AI 미래에 대해 조망한다. 그래픽 프로세서 제조사 엔비디아의 CEO는 직접 무대에 올라 ‘AI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좌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11월 5일에는 K-AI 얼라이언스 중심 패널리스트 및 AI 에너지, 미래 AI 메모리,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AI 서비스 등 주제별로 AI가 촉발할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대담도 펼쳐진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SK C&amp;C, 中企 ISO 획득·유지 돕는다

한국경영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

SK C&C가 중소기업들의 ISO 인증 획득과 유지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

SK C&C가 국내 대표 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과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생태계 조성 위한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 C&C가 보유한 디지털 기술 역량과 한국경영인증원의 ESG 및 경영시스템 인증 전문성을 결합해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사는 이에 맞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표준화기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u-타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지속가능성과 ESG 강화를 위한 사업협력 MOU 체결식’에서 신용운 ESG 전략담당(왼쪽)과 한국경영인증원(KMR) 황은주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SK C&C

구(ISO)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 분야 협력에 나선다. /김서현 기자 seoh@